

제8회 국가정책포럼

국가의 미래, 안녕한가?

1. 고령화의 도전



인사말씀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이 깊어 갑니다. 지난 여름의 혹서도 계절의 변화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엄연한 자연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미래의 부담과 리스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나 복지 문제만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공동의 미래,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사활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의 미래는 이미 눈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은 2016년부터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과제들을 서울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열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직면한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늙어가는 나라', 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고령화, 인구, 노인과 청년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이미 눈 앞에 다가온 노화국가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포럼이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드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강원택, 김병연, 김석호, 김의영, 유명순, 윤순진, 장덕진, 최현자)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제8회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장기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의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가정책포럼에서의 논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출산율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저출산 상황으로 진입은 했지만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위기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인구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1년 이후에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소위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인구절벽은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높아지는 노인 부양부담은 투자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미래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비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계에 의하면 부양비율이 2015년 37.0%에서 2060년 101.0%로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약 100개의 정책을 추진하며 80조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해결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시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가정책포럼에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제해결의 해법을 제시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주
사회과학대학 학장

프로그램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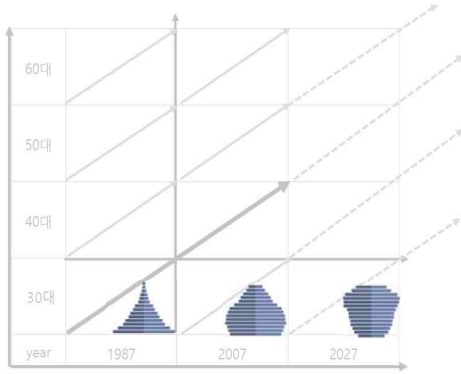
- 13:30~14:00 **등록, 진행** 행사사회: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 14:00~14:05 **개회사** **홍준형**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 14:05~14:10 **축사**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좌장)
- 14:10~14:30 **인구 / 고령사회, 진짜가 다가온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4:30~14:50 **노인 / 노년의 삶과 노동: 거대한 충돌**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4:50~15:10 **청년 / 청년세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다**
김홍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15:10~15:20 **휴식**
- 15:20~15:50 **토론**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5:50~16:00 **총평**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인구
고령사회, 진짜가 다가온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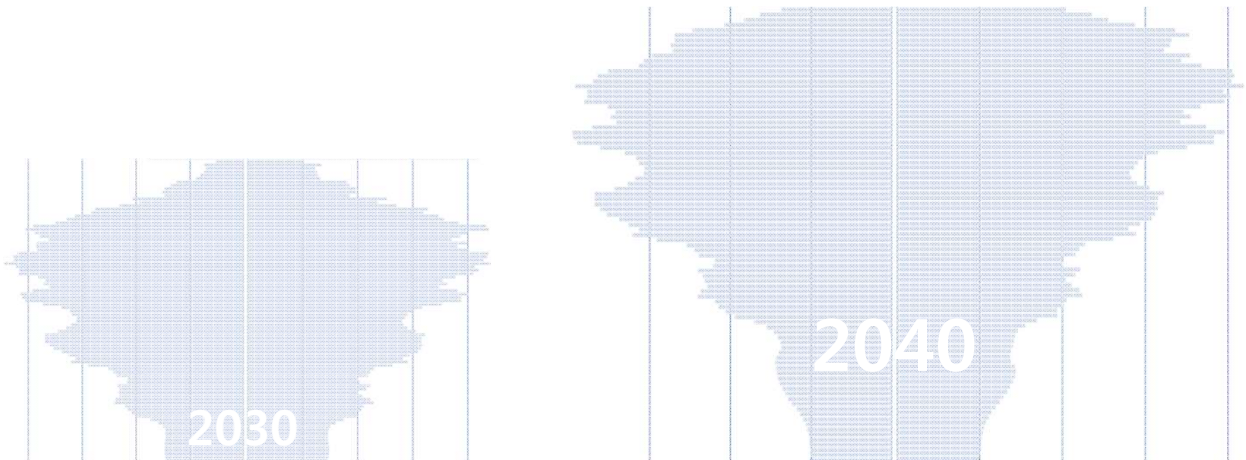
고령사회(저출산),

진짜가 다가온다



조 영 태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학
베트남정부 인구정책자문

고령화(저출산) 담론, 몇 년짜리인가?



고령화(저출산) 담론, 몇 년짜리인가?

고령화: 2000년 고령인구 7%

저출산: 2002년 합계출산율 1.27

2030

2040

내 인생,

혹은 우리 사회(대학)이

고령화(저출산)로 인해

영향 받은 것이 있는가?

2030

2040

내 인생,

혹은 우리 사회(대학)이

고령화(저출산)로 인해

영향 받은 것이 있는가?

2030

2040
Not Re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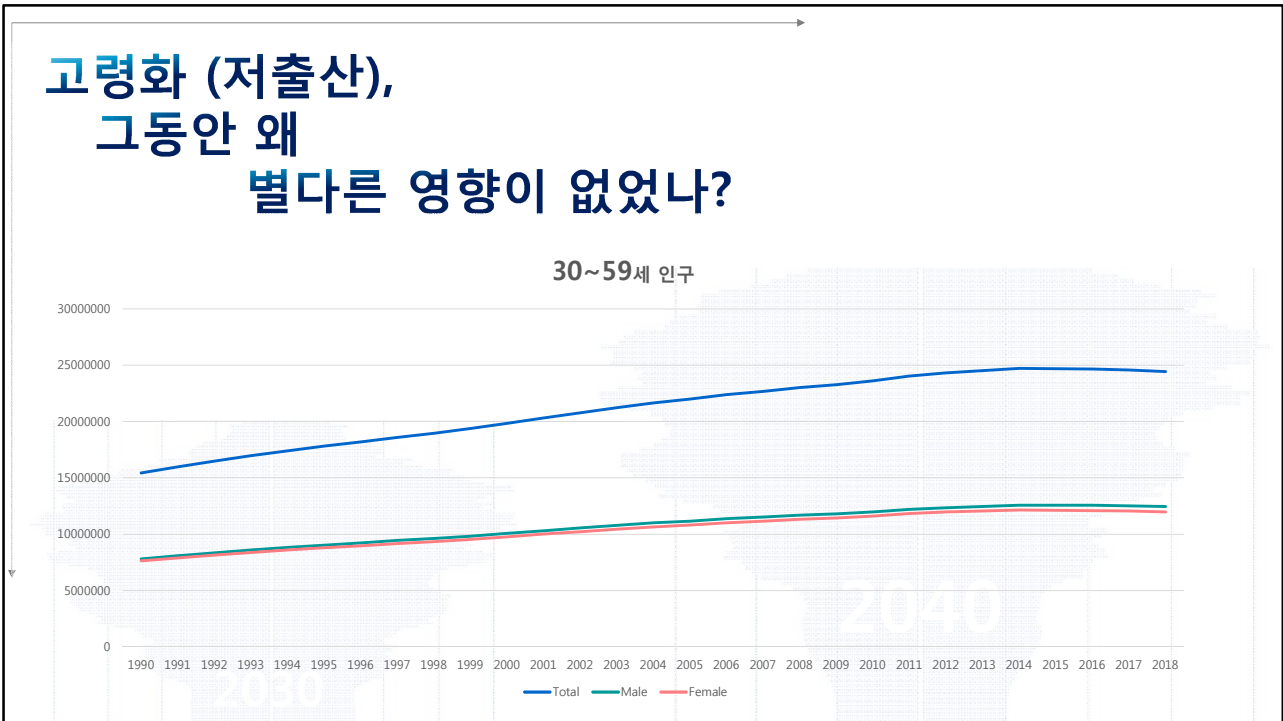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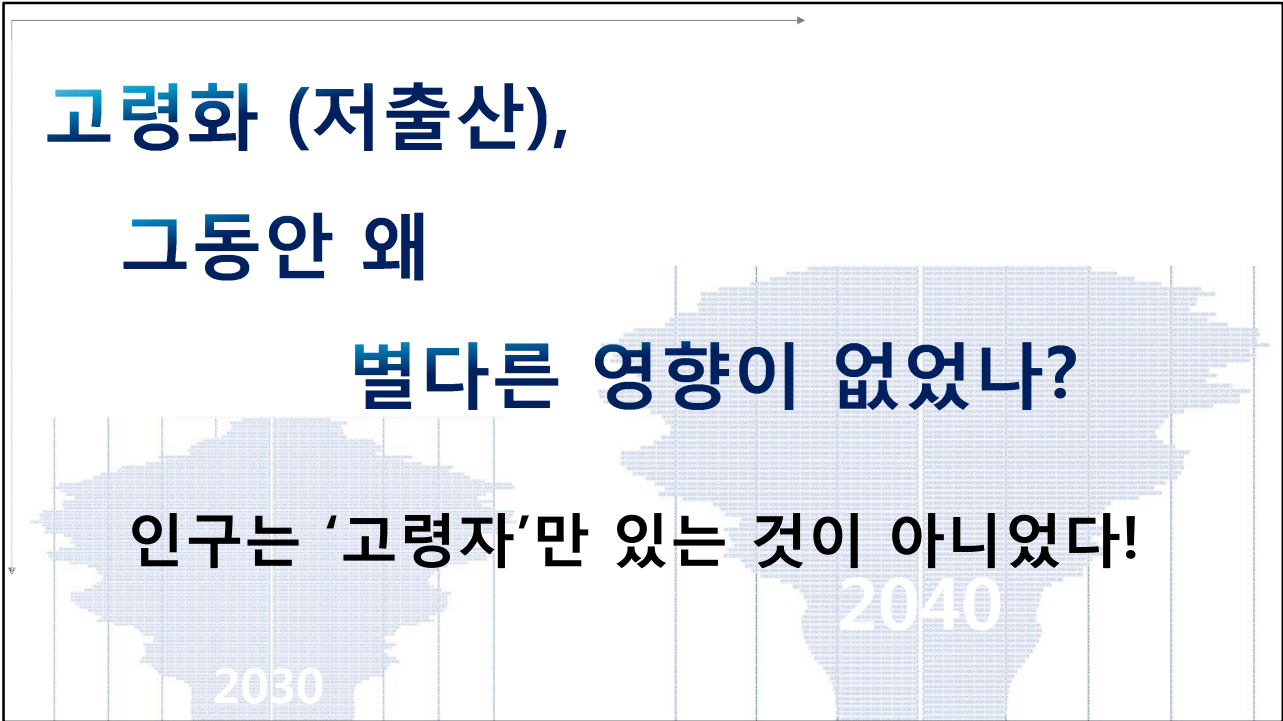
고령화 (저출산),

그동안 왜

별다른 영향이 없었나?

2030

2040



저출산, 그동안 왜 별다른 영향이 없었나?

어린이 시장: 규모와 객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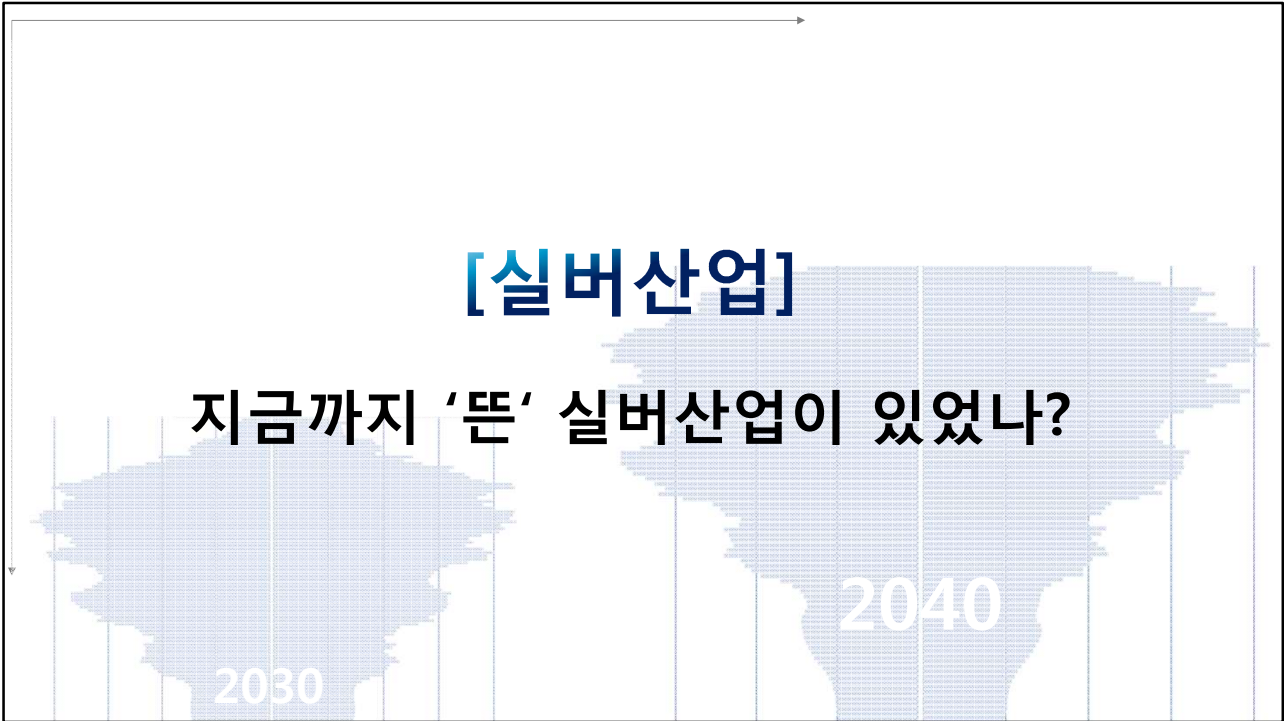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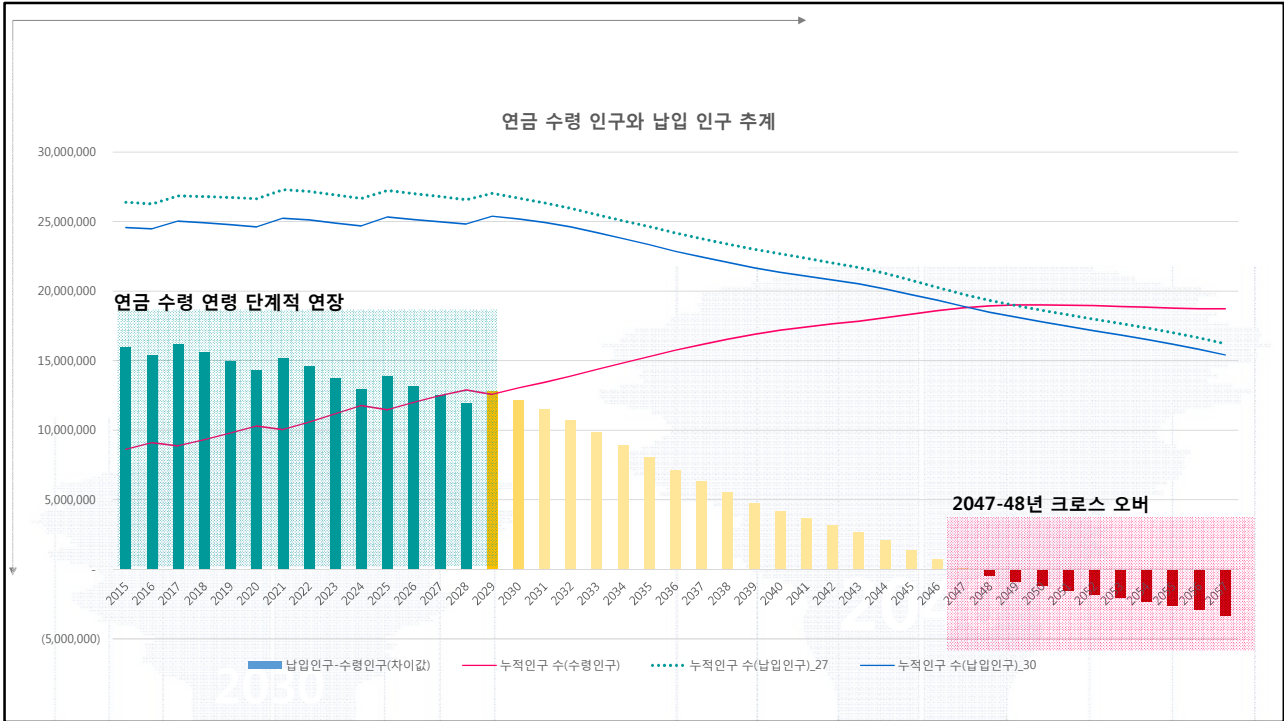
2040

고령화, 진짜가 온다고?

2030

2040





저출산, 진짜가 온다고?

출생아 수

2015: 44만 → 2018: 32만 → 2021년: 29.8만 → 2030: 28만 → 2035: 23만

대입 수험생 수 (현역, N수, 검정고시 포함)

2015: 64만 → 2018: 59만 → 2020년: 49만 → 2023: 45만 → 2030: 49만 → 2035년: 39만



정해진 미래

진짜 고령화,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인
노년의 삶과 노동: 거대한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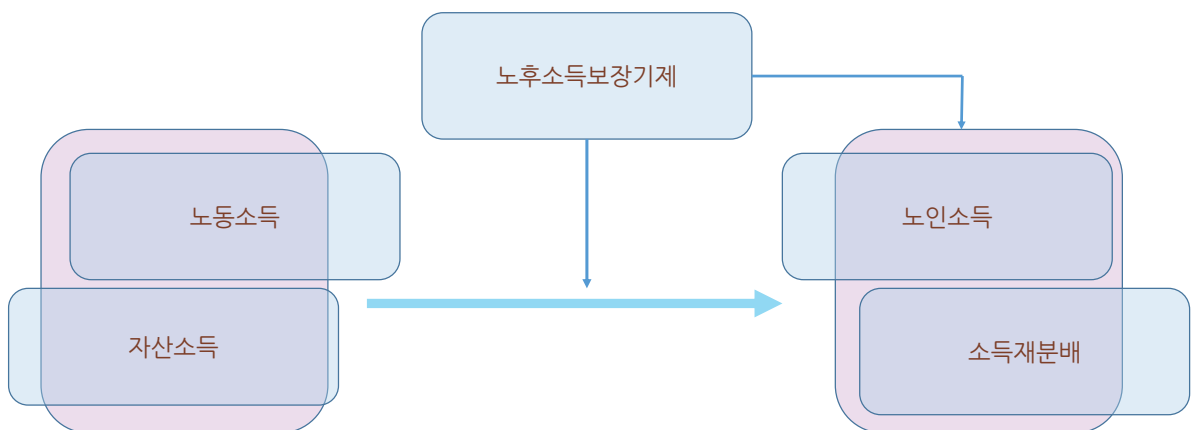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년의 삶과 노동 : 거대한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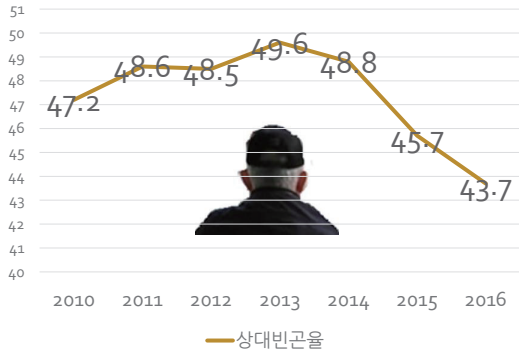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불평등-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빈곤. 사회정책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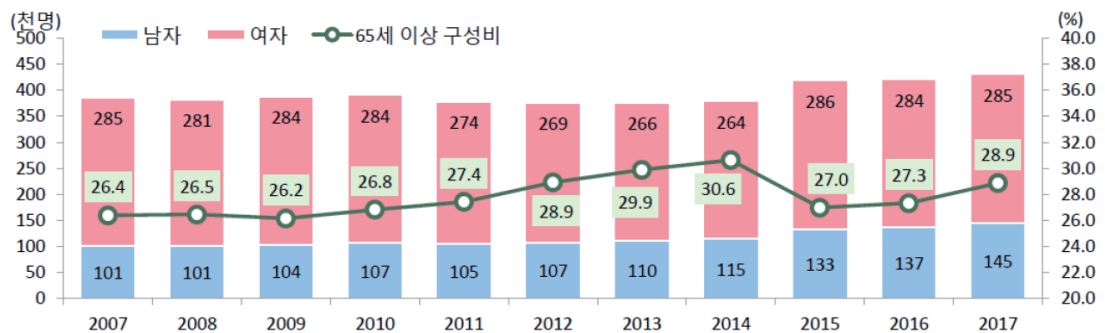


노인빈곤. 사회정책의 결과



노인빈곤. 사회정책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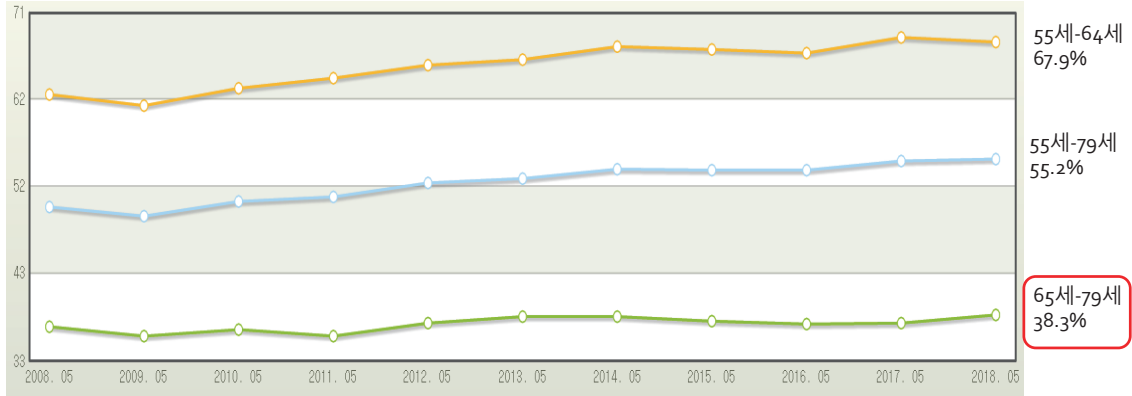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출처: 2018 통계청 고령자통계

노인노동

• 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종적 안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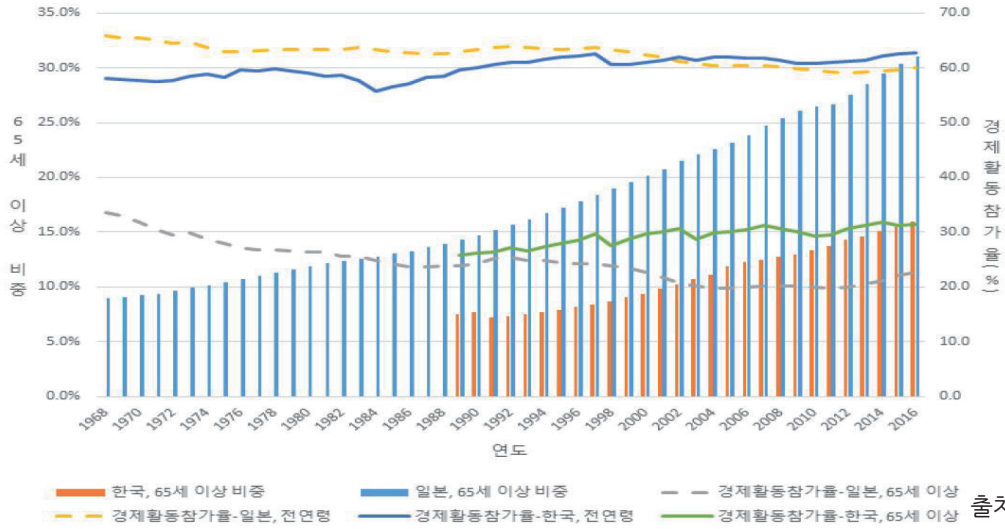
노인노동

고령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횡적 우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스웨덴 (84.4)	스웨덴 (68.2)	한국 (45.5)	한국 (33.1)
체코 (83.6)	한국 (60.6)	에스토니아 (32.8)	에스토니아 (15.6)
덴마크 (80.5)	독일 (58.4)	스웨덴 (23.4)	루마니아 (13.5)
⋮	에스토니아 (57.3)	라트비아 (22.0)	포르투갈 (11.7)
한국 (7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EU Labor Force Survey
출처 : 2018 고령자통계

노인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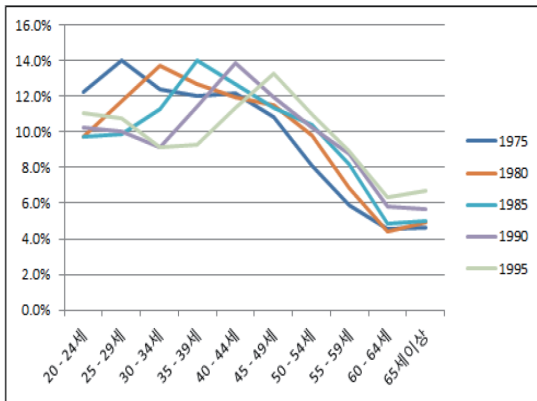


출처 : 2017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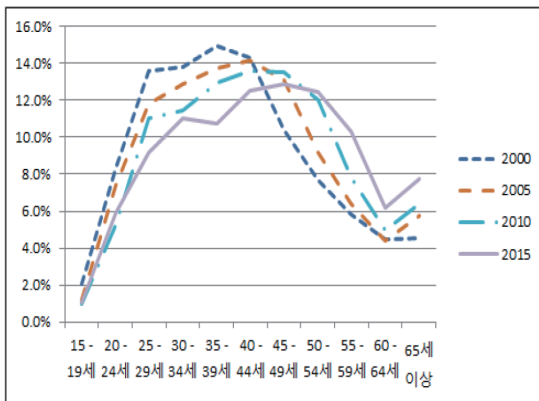
노인노동

경제활동인구에서 각 연령대의 구성비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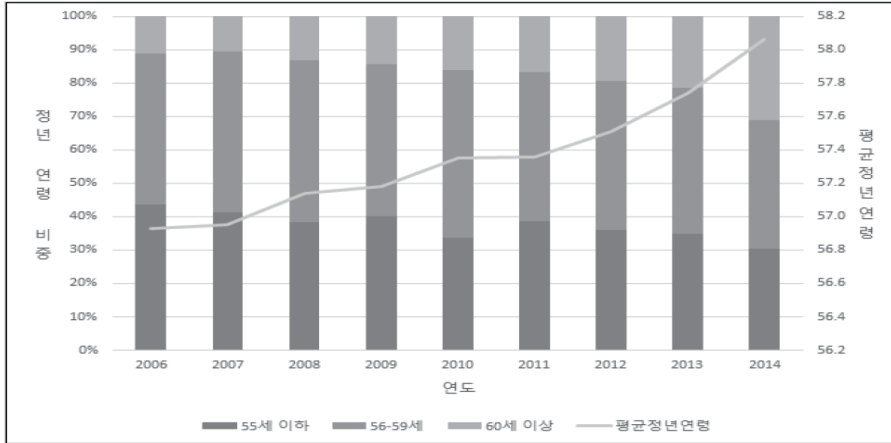
• 한국



출처 : 2017 국민연금공단

노인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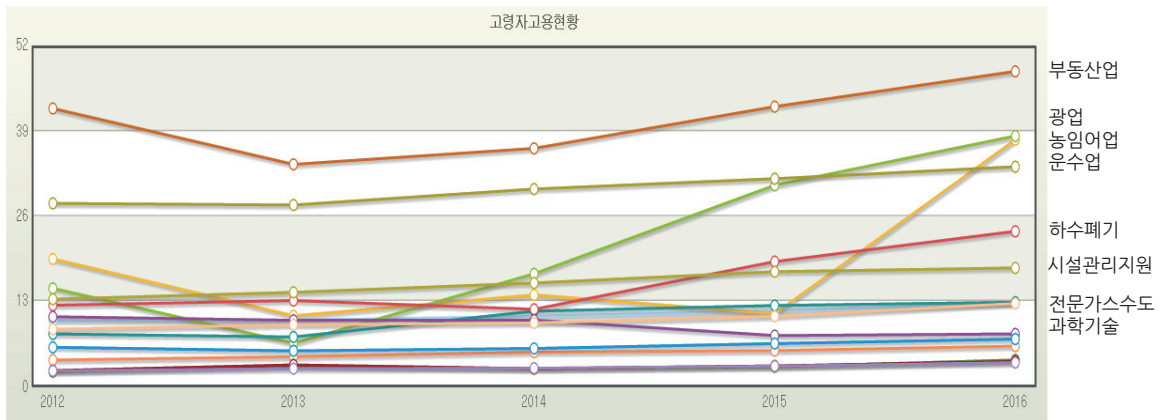
• 정년



출처 : 2017 국민연금공단

노인노동

• 업종별 고령자 고용비율(300인 이상 사업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인노동

• 산업별 취업자 비중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5.6%
- 도소매 음식숙박업 19.6%
- 농림어업 14.4%

• 직업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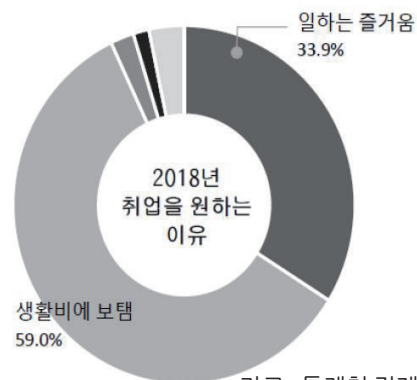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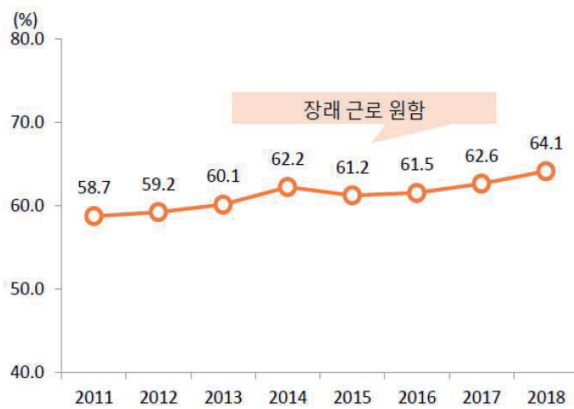
- 단순노무종사자 24.4%
-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22.3%
- 서비스판매종사자 22.1%

(단위 : 천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통신 금융업
전 체 ²⁾ (2018년)	27,064	100.0	5.5	16.7	16.7	77.8	7.5	22.0	36.6	11.6
2015	6,376	100.0	16.5	10.7	10.7	72.7	7.8	20.6	34.4	9.9
2016	6,715	100.0	14.8	11.4	11.3	73.8	8.2	20.2	34.9	10.5
2017	7,117	100.0	14.3	11.8	11.7	73.9	8.7	19.9	35.3	10.0
2018	7,421	100.0	14.4	11.8	11.7	73.8	8.7	19.6	35.6	10.0
55~ 79세										
55~64세	5,213	100.0	8.7	14.0	13.9	77.3	10.8	22.0	33.5	11.0
65~79세	2,209	100.0	27.8	6.5	6.4	65.8	3.8	14.0	40.4	7.5

노인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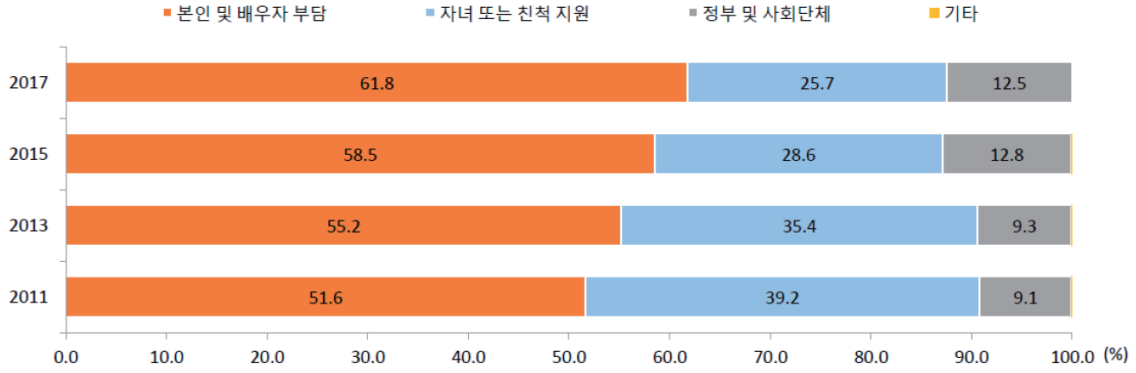
• 취업희망 (55세-7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2018 고령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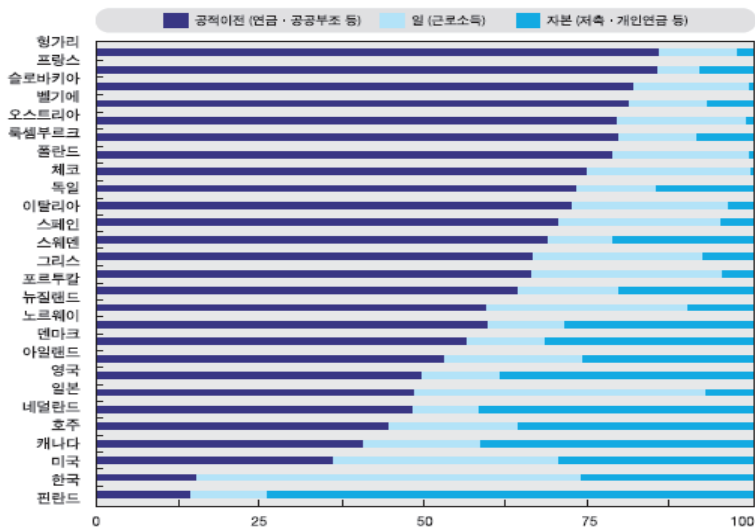
노인노동

• 고령자 소득구조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출처 : 2018 고령자통계

노인노동



노인노동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 119만명, 노인일자리 수 51만명
남인순의원 “노인빈곤율 OECD 1위, 노인일자리 확대 절실”

노인노동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유형	내용	지원	전달체계	일자리수 (천개)
총 계					467
만 65세 이상	공익활동	노년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월 27만 9(12)개 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337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월 10만 6개 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노인회	45
만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00만원 사업비	시니어 클럽 등	55
	인력파견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에 연계	연 15만원 사업비	무료직업소개소 등	19
	시니어 인턴십	기업에서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연 최대 270만원 인건비 보조	민간 운영기관	7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고용 기업 설립 지원	최대 3억원 사업비	기업	2
	기업연계형	기업이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델개발, 장비·설비 구입 등 지원	연 200만원 내외 사업비 보조	인력개발원 기업	3

출처 : 보건복지부, 2018

노인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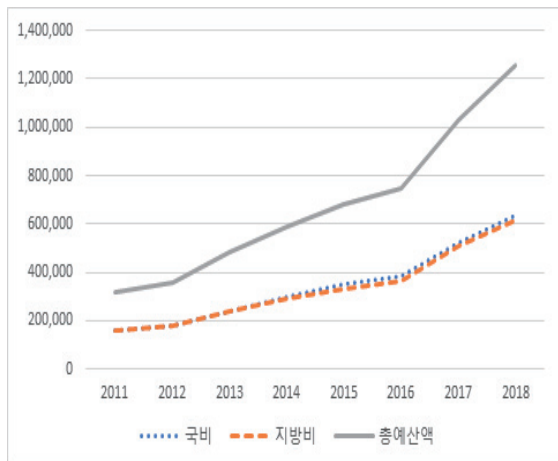
• 노인일자리사업

구분	계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참여자 수	429,726	290,625	40,163	77,734	12,557	6,730	1,545	372
비율	100.0	67.6	9.3	18.1	2.9	1.6	0.4	0.1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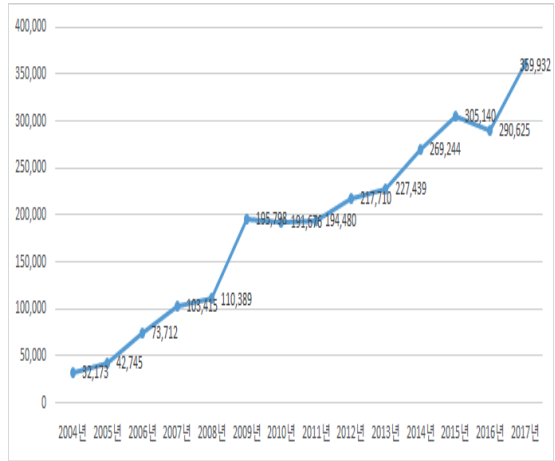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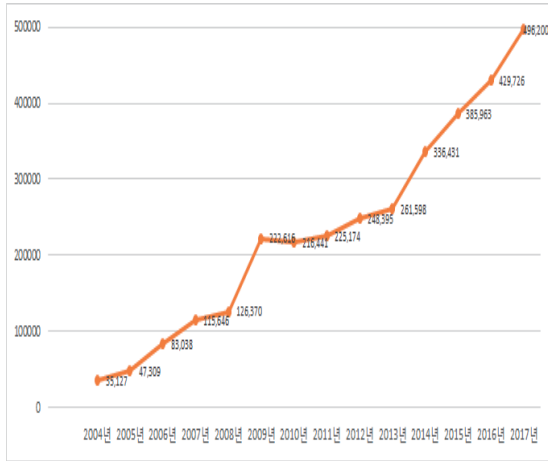
노인노동

	2012	2014	2016	2018
국비(백만원)	178,465	297,265	382,416	634,900
비율(%)	50.21	50.27	51.16	50.68
지방비	176,903	293,969	364,941	617,800
비율	49.79	49.73	48.84	49.32
총예산액	355,368	591,234	747,357	1,252,700
증가율	11.21	22.88	9.64	21.68



자료 : 보건복지부, 해당년도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진행중

노인노동



자료 : 보건복지부, 해당년도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진행중

노인노동

•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구분			청장년		중고령		χ ²
			빈도	%	빈도	%	
고용 불안정	중사상 지위	임시일용	573	56.5	357	67.1	16.346***
		상용	441	43.5	175	32.9	
	주관적 고용안정	불안정	503	49.6	292	54.9	3.897*
		안정	511	50.4	240	45.1	
소득 불안정	중위임금	미만	343	37.8	237	46.3	9.720**
		이상	564	62.2	275	53.7	
	국민연금	미가입	492	48.6	305	57.7	11.368**
		가입	520	51.4	224	42.3	

p<.05* p<.01** p<.001***

자료 : 2016 한국노동패널
출처 : 최혜지, 2018

노인노동

•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단위: 명, %

구분		청장년			중고령		
		소득 불안정			소득 불안정		
		불안정	안정	소계	불안정	안정	소계
고용 불안정	불안정	120(12.7)	202(21.4)	322(34.2)	101(19.6)	122(23.6)	223(43.2)
	안정	86(9.2)	534(56.7)	620(65.8)	56(10.8)	237(46.0)	293(56.8)
	소계	206(21.9)	736(78.1)	942	157(30.4)	359(69.6)	516

청장년 $\chi^2 = 67.895^{***}$

중고령 $\chi^2 = 40.995^{***}$

$p < .05^* p < .01^{**} p < .001^{***}$

자료: 2016 한국노동패널
출처: 최혜지, 2018

노후소득보장

구분	합계	60세미만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연금수 급자	계	4,517,289	277,227	2,399,403	1,591,145	246,271	3,178	65
	남	2,614,116	86,949	1,474,834	930,287	120,768	1,268	10
	여	1,903,173	190,278	924,569	660,858	125,503	1,910	55
노령연 금	계	3,731,428	42,205	2,147,255	1,356,631	185,310	27	0
	남	2,495,167	28,974	1,447,734	907,933	110,504	2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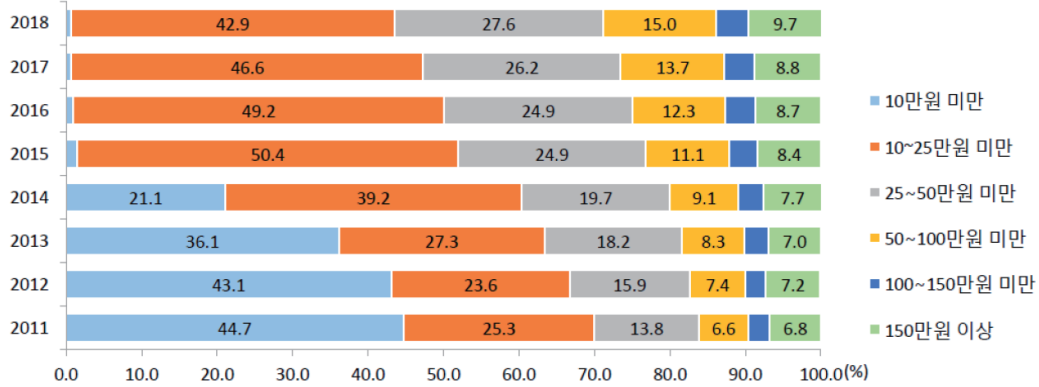
• 노인국민연금수급율

- 2016년 65세 이상 38%(35만원)

출처: 연합뉴스, 2018.10.01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 수령액별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2018 고령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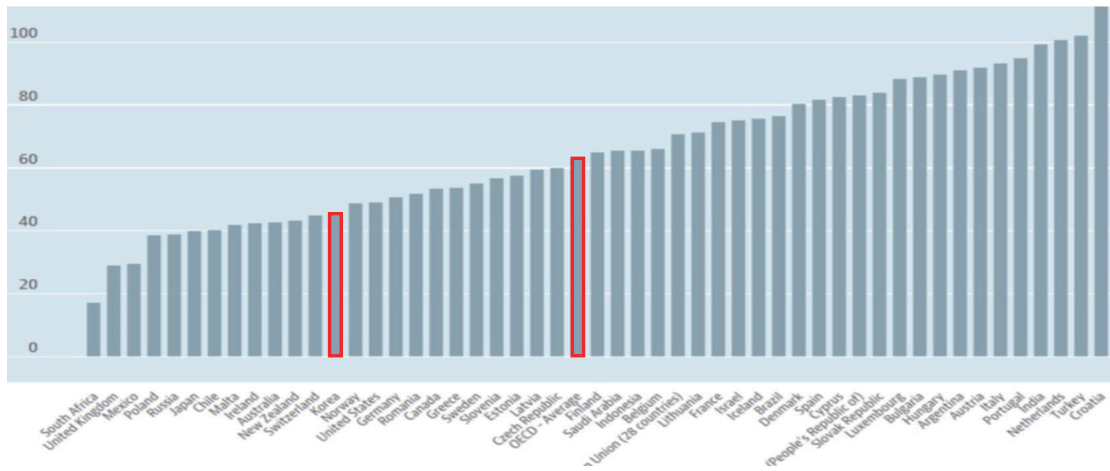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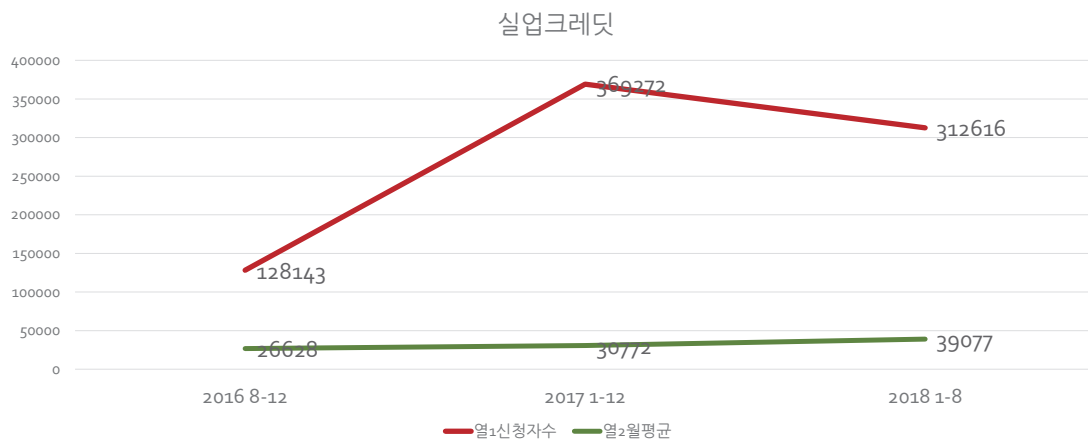
-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18~27년
- 이 경우 실질소득대체율 21~24%
-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 가입기간 25년 가정
 - 월 100만원 소득자 월 41만원
 - 월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 월 57만원
 - 월 300만원 소득자 월 66만원
 - 월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 월 87만원

연합뉴스. 10.23

노후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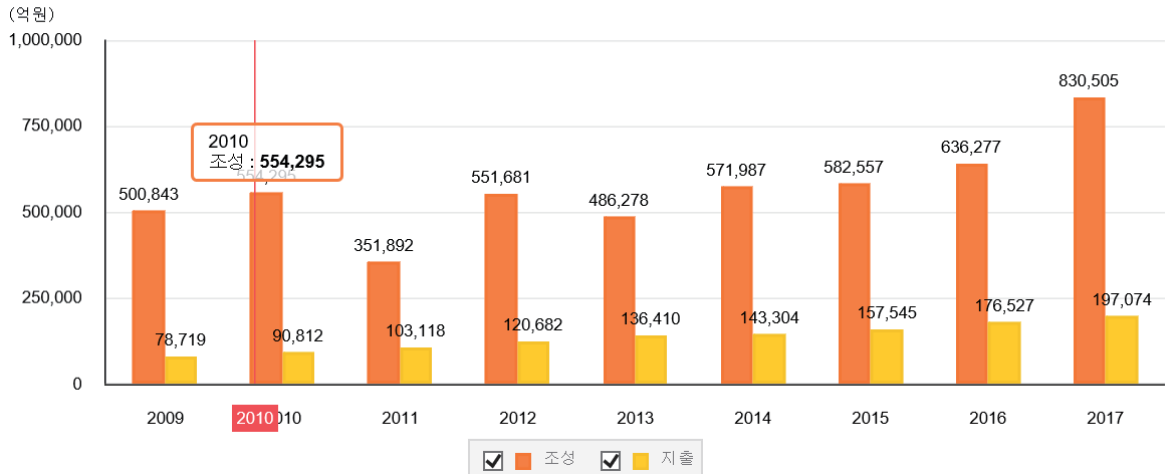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2018 고령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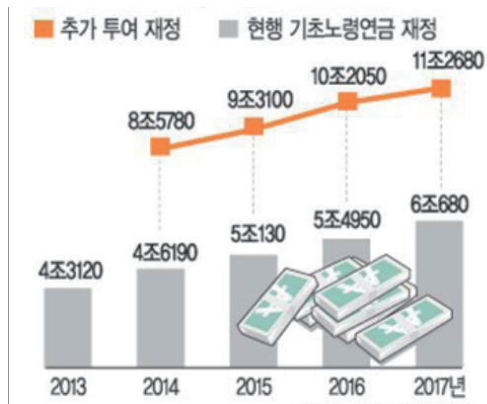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재정현황



노후소득보장

• 기초연금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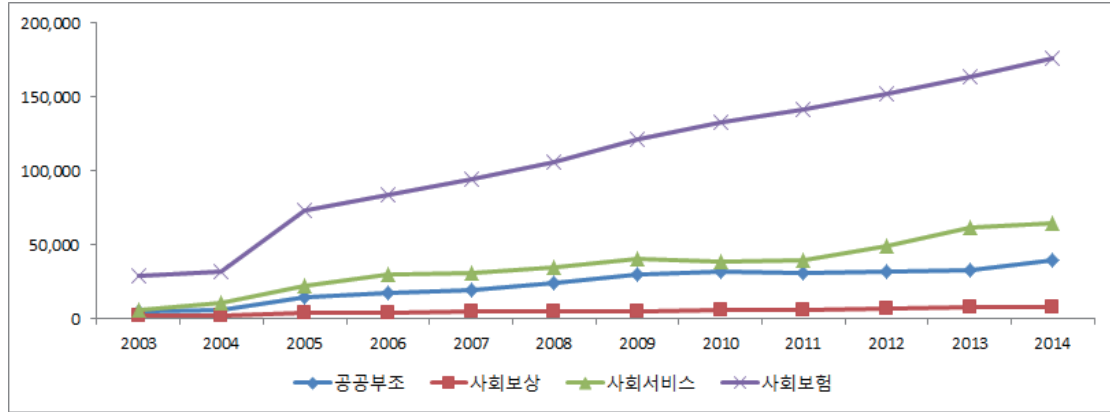


• 수혜율

- 노인인구의 65.6%
- 45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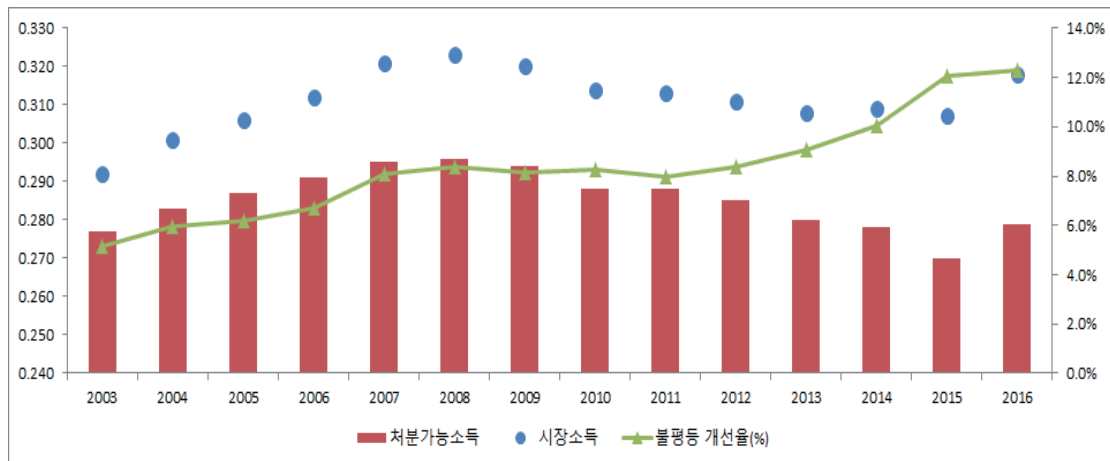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지출증감추이



자료 : 고경환, 2015
출처 : 남재욱, 2018

소득재분배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출처 : 남재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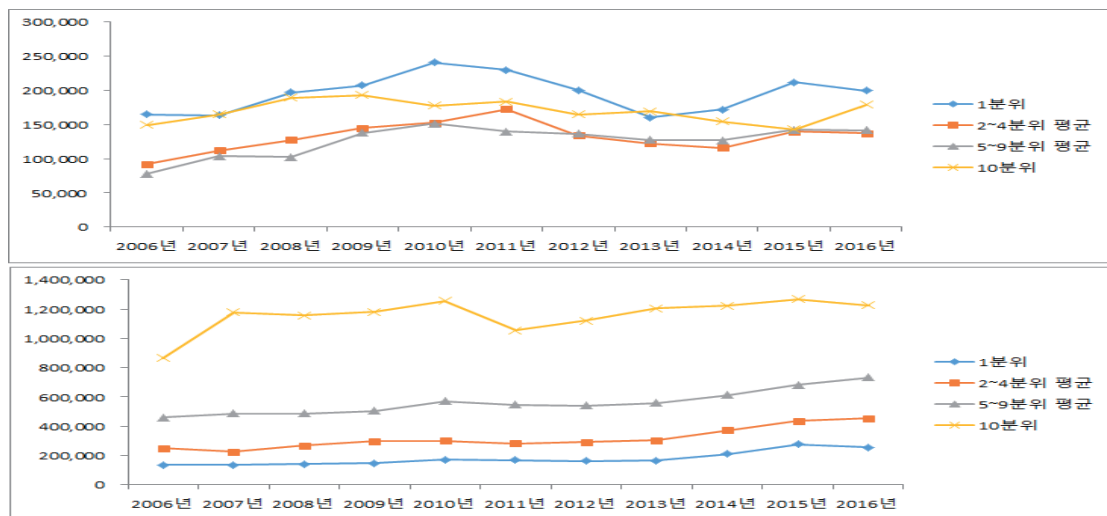
소득재분배

• 분위별 소득재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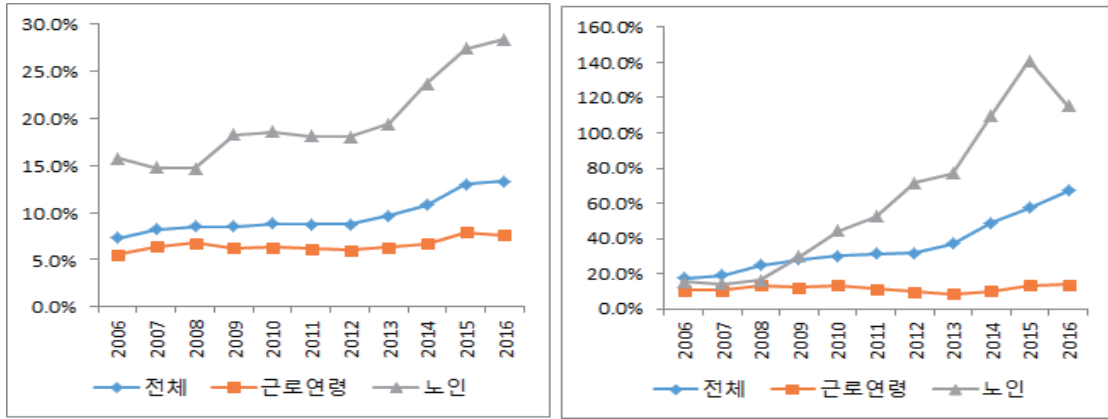
전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위	1.12	1.14	1.19	1.23	1.24	1.25	1.26	1.31	1.42	1.51	1.61
2분위	1.02	1.02	1.03	1.04	1.04	1.03	1.02	1.04	1.05	1.09	1.12
3분위	0.98	1.00	1.00	1.00	0.99	0.99	0.98	0.99	1.00	1.01	1.01
4분위	0.97	0.98	0.98	0.97	0.96	0.96	0.97	0.97	0.98	0.99	0.99
5분위	0.96	0.97	0.98	0.97	0.96	0.96	0.96	0.96	0.95	0.97	0.98
6분위	0.96	0.96	0.96	0.95	0.96	0.95	0.96	0.95	0.96	0.96	0.95
7분위	0.95	0.95	0.95	0.96	0.95	0.95	0.94	0.95	0.95	0.95	0.96
8분위	0.93	0.95	0.94	0.95	0.95	0.94	0.95	0.94	0.94	0.94	0.94
9분위	0.94	0.94	0.93	0.94	0.94	0.94	0.93	0.94	0.93	0.93	0.93
10분위	0.93	0.92	0.92	0.93	0.92	0.92	0.92	0.92	0.91	0.91	0.9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출처 : 남재욱, 2018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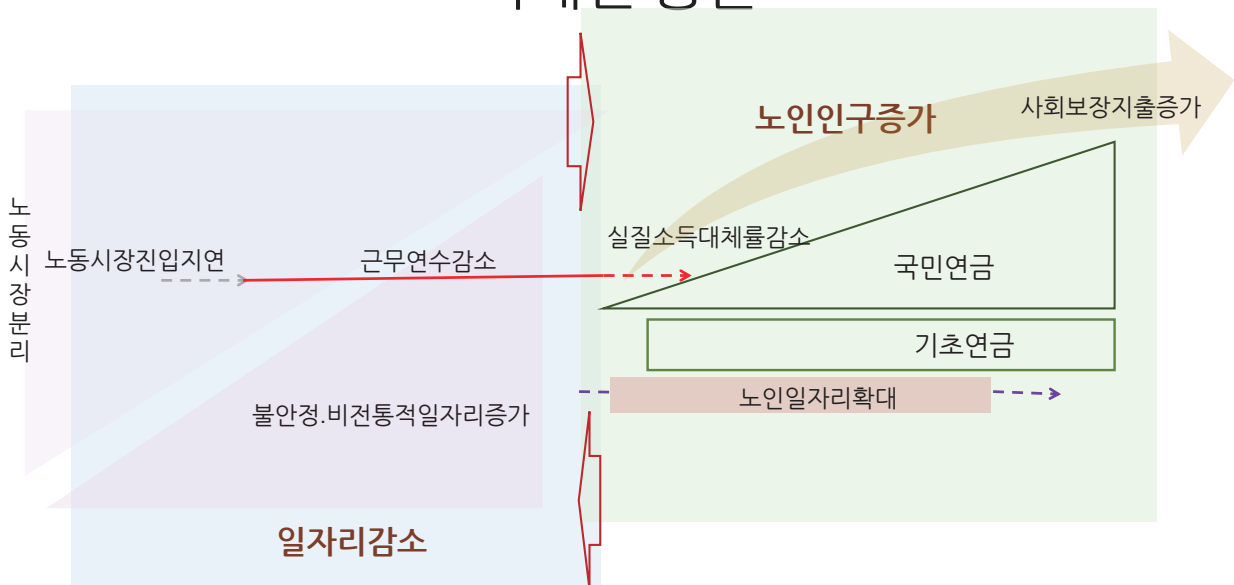


좌: (시작소득 gini - 가처분소득 gini) / 시장소득 gini

우: (소득1분위의 가처분소득 점유비 - 소득 1분위의 시장소득 점유비) / 소득 1분위의 시장소득 점유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출처: 남재욱, 2018

거대한 충돌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교.
- 남재욱, 2018. 한국복지국가성장의 분배적 함의. 2018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종합계획
- 연합뉴스. 10.01. 10월 2일 노인의날...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65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8/0200000000AKR20180928110200017.HTML?input=1179m>
- 연합뉴스. 10.23. 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받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1024.22002010200>
- 최혜지, 2018. 중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노인복지연구, 73(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2016 노인일자리통계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진행중.
- 통계청, 2018. 고령자통계

청년

청년세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다

김홍중

(서울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청년세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다

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

- 이 원고는 다음 논문을 축약하고, 그에 최근 연구성과들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1).

I. 새로운 청년들의 등장

21세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 연령적으로는 20대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청년들이며, 학교-직업의 자동적 연계가 파괴되어, 최종 학력기관을 졸업한 이후 상당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잉여’로 지내야 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삶의 당연한 과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거나 혹은 포기하면서, 이전의 청년들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주목의 대상이다. 2007년에 우석훈과 박권일이 '88만원 세대'라는 용어로 당시의 20대를 규정한 이래 'IP 세대'(동아일보), 'Global 세대'(조선일보), '2.0 세대'(김호기), '삼포세대'(경향신문) 등의 호명과 진단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른바 청년세대론의 폭발을 체험하였다. 이 관찰들 속에서 이들은, 실업과 높은 등록금 그리고 정서적 불안과 폐색감(閉塞感)에 시달리면서 사회문제보다는 개인적 활로를 타개하는데 더 몰두하는 존재들로 표상되고 있다¹⁾.

주지하듯 청년 혹은 청년은 역사적으로 발명된 ‘개념’으로서(Galland, 2011: 9-34), 19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 수입되어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들에게 부여된 기호이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청년은 국가 건설의 주역, 계몽주의자, 산업 역군, 반공(反共)전사, 민주화투사,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 혹은 아방가르드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어 왔다(이기훈, 2014). 이 과정에서 청년은 대개의 경우 특정 거대서사의 담지자 역할을 수행했고, 기성 권력과 제도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것들과 싸우며 새로움을 추구하

1) 한국, 중국, 일본 사회 모두가 흥미롭게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의 청년 세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진단의 담론들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빠링허우(80後) 세대’라는 용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문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처음에 이 용어는 80년대 생 젊은 작가들을 가리켰지만, 점차 확장되어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행위규범, 생활방식, 가치관을 가진 사회집단을 지칭하기 시작하였다(黃洪基, 鄧蕾, 陈宁, 陆焯, 2009). 이들은 1가정 1자녀 정책 하에서 태어난 외아들 외동딸이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방탕한 청년”, “전통에 대한 반역의 대명사”, 혹은 예쁘지만 연약한 모습을 풍자한 “딸기종족”, 고크학력이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며 집단거주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개미족”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질 만큼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張有平, 趙广平, 2008; 聂婷, 张敦智, 2007; 刘锐, 2010). 일본의 ‘로스제네’는 대개 1971년부터 1980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2006년 8월 아사히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ロストジェネレーション(lost generation)’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으며 등장했다. 2007년 아사히신문의 특집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10년”에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25세~35세)의 실태를 연재하면서, 이 세대에 다수 존재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프리타, 넷카페 난민, 히키코모리, 파견 노동자 등을 로스제네로 총칭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로스제네’라는 잡지도 발간되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용이나 경제문제와 로스제네세대를 관련시킨 논의도 대규모로 증가했다(Brinton, 2011; 구마시로 도루, 2014). 이들 역시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등장한 새로운 청년들이다. 사회변동에 의해 궁지에 몰린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사실 글로벌한 현상이다(Comaroff & Comaroff, 2001: 16-19; Hutchens, 1994; Klammer, 2010; Kretsos, 2010).

는 운동적 주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Rossinow, 1998; 주은우, 2004). 그러나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가혹한 경쟁에 노출된 채 자신의 선배들이 누렸던 ‘영웅적’ 청춘을 더 이상 구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전상진, 2013: 316-20).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은 이들의 리얼리티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것은 ‘생존(survival)’이다.

II. 세대 의식에서 세대의 마음으로 - 만하임을 경유하여

만하임의 "세대 문제"가 출판된 이래 세대는 사회학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적 자원으로 인지되고 활용되어 왔다(Roseman, 1995: 7-8; Edmunds & Turner, 2002: 7-11; 유라이트 & 빌트, 2014: 29). 만하임이 세대 사회학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기여는, 계급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사회 변동의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한 데 있다(만하임, 2013). 만하임의 이런 초석적 세대 개념은 그러나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의 난점을 노정한다.

첫째, 만하임의 세대 개념이, 특정 사건이 야기한 영향을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역사적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가령 68세대, 4.19세대, 1차 세계대전 세대 등), 그런 체험을 공유하지 않는 ‘사회적 세대’들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메리 브린튼은 “사회적 세대의 구성원들은 집합적 이해관계나 정체성을 반드시 인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은 다른 세대들과 구분되는 특정한 사회화의 방식들을 갖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로스 제네’를 그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다(Brinton, 2011: 10-1). 이런 관점은 생존주의 세대에 대한 접근에 매우 유효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는 만하임에 의해 역사적 행위자로서 상징된 세대에 부여된 과도한 행위 능력을 거론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단위세대가 변화를 추동하는 행위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Pilcher, 1994: 491). 그러나 특정 세대가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생존주의 세대를 논하기 전에, 사회구조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세대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주조해 내었는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Aboim & Vasconcelos, 2014: 167).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세대적 특이성의 본질, 즉 세대성(世代性)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만하임은 세대성의 본질을 세대가 공유하는 ‘의식(consciousness)’에서 찾고 있다. 이에 반해서, 20세기 사회과학은 행위자의 개별 행위자의 ‘의식’을 넘어서는 집합 표상들, 미디어들, 지식과 상징들, 혹은 행위자들의 신체에 체화된 의식 이전의 습관들과 성향들, 의례나 공연을 통해 수행되는 다양한 실천들 혹은 상징적 상호작용들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으며, 이는 세대를 세대로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탐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Pilcher, 1994: 492; Aboim & Vasconcelos, 2014: 174-9; Eyerman & Turner, 1998: 93; Esler, 1984).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세대의 ‘의식’이 아닌 그 ‘마음’을 탐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관점을 제안한다(김홍중, 2014a: 184). 마음이 행위능력의 원천이라는 이 입장은 사회적 행위자 뇌, DNA, 의식, 무의식, 습관(하비투스), 육체 등으로부터 솟아나온다는 여러 상이한 이론적 입장들과의 차이를 명시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분리선을 긋는 강한 사회학주의적 입장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며, 순수한 합리성으로 사회적 행위의 본성을 이해하는 사회과학의 오랜 전통과의 차이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건, 사랑이건, 학습이건, 양육이건, 저항이건, 창조이건, 운동이건, 소통이건, 혁명이건 모든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의 마음에서 시발된다. 행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즉 마음가짐을 규명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행위자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혹은 다른 마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규칙과 규범들의 총체를 가리키며, 사회적으로 공유된 행위준칙들(rules of conduct)인 사고방식, 감정양식, 그리고 욕망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문법이나 법률처럼 사회적 사실에 속한다.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주된 감정과 서바이벌에 대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과 생각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의 조직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 마음이 그들의 행위와 실천을 움직이는, 이 세대에 고유한 삶의 형식들을 생산하는 행위능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를 생존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생존주의는,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지되고 체험되는 경쟁상황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수월성을 증명함으로써, 패배나 그 결과 주어지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구제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믿는 마음의 레짐(psycho-regime)을 가리킨다.

III. 문제공간의 변동 - 생존주의의 형성

마음(psycho-agency)을 세대 구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고려하는 이런 관점에 의하면, ‘세대’는 사람들의 집합 즉, 특정 출생코호트로 환원되지 않는다²⁾.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대 형성적 소통의 총체이자 세대적 의미론을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들의 결정체 즉, 세대가 공유하는 마음/가짐(psycho-scheme)이다. 그렇다면 생존을 향한 이 강력한 열망과 불안과 계산의 집합심리(세대의 마음)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가? 이에 대해 프래그머티즘적인 설명논리를 제안한다(김홍중, 2014a: 203-4). 말하자면, 행위자들이 특정한 심적 태도를 집합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공통의 ‘문제/과제’가 출현하여, 이 ‘문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능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향할 실제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구성되고 그 서열과 중요성이 결정되는 복합적 의사소통 공간을 나는 ‘문제공간’이라 부른다. 문제공간은 사회구조와 행위의 두 차원을 매개하면서 사건화와 문제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문제공간을 통해서 구조의 힘은 행위자의 생활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구체적 사건들의 형태로 행위자들의 체험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즉, 문제들의 사건화(eventalization)가 발생한다. 주지하듯 사회구조는, 행위자들의 실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파라미터들의 분포’의 형태로 사회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압력)을 행사한다(Blau, 1974). 그런데 가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제도화’의 구조적 압력은, 아버지의 실업, 어머니의 우울증, 빈곤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 등록금 인상, 청년 실업, 의료비 증가, 양극화로 인한 절망 범죄의 증가, 취업난, 전세대란, 우울증의 발병, 혹은 세월호 참사와

2) 유럽 사회학과 미국 사회학은 여기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주로 세대 개념을 친족관계에 대한 논의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코호트에 대한 통계적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 사회학계에서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세대의 개념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Chauvel, 2006: 151; Chauvel, 2010: 81 이하). 코호트적 접근이 세대론적 접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Alwin & McCammon, 2003: 41; Cavalli, 2004; Edmunds & Turner, 2005: 561).

같은 형태로 사건화되어 행위자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용어로 남게 된다. 이처럼 구조(거시)와 행위(미시) 사이에는, 제도가 발휘하는 효과들이 구체적 삶의 사건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복잡하고 우발적인 사건화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 공간을 통해서 특정 사회적 행위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주요한 문제들이 구성되는 문제화(problematization)가 발생한다. 이 두 번째 효과는 추상적 압력이 야기한 잠재적 문제들 혹은 앞서 이야기한 사건들이 기존의 문화적 인지구조에 의해 해석되면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로 지각, 인지, 상징화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사건화가 비교적 사건들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면, 문제화는 사건화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속성을 내포한다. 어떤 문제도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정되고 인지될 필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형성은 모종의 선택과 희소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한국 청년 세대의 생존주의의 형성은, ‘서바이벌’이라는 독특하고 특권적인 ‘기표’를 통해 청년 세대의 객관적 현실이 표상되어 재구성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마음의 레짐을 구성하여 실천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변동은 청년들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위계, 배치, 중요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문제 공간을 발생시켰다. 우선, 높은 청년 실업률과 ‘학업-직업(school-work)’의 연계 고리의 파괴가 야기한 취업 문제, 그리고 높은 대학 등록금과 대출 그리고 주택자금의 문제, 즉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업이라는 ‘실패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기 시작했으며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구성되는 친밀성 영역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영역(리스크)으로 전환되어, 결혼과 출산이 삶의 필수적 과정으로부터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Kim, 2013: 324-5).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이란 용어는 이들 청년 세대가 삶을 고민할 때 그것에 조희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설정의 틀로 등장하게 된다.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청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0년경부터, 에세이, 웹툰,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소설의 형식으로 청년 세대가 스스로 생산한 자기관찰들은 정글과 같은 삶에서의 서바이벌 문제가 이들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간파할 수 있게 한다³⁾. 생존/낙오의 코드는 청년들의 마음이

3) 이에 해당하는 주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예슬. 2010. 『김예슬선언』. 느린걸음.; 단편선, 전아름, 박연수. 2010. 『요새 젊은 것들』. 자리.; 김민수. 2013. 『청춘이 사는 법』. 리더스북.; 유재인. 2010. 『위풍당당 개청춘』. 이순.; 장현정, 류성효, 송교성. 2012. 『레알청춘대폭발』. 호밀밭.; 청년유니온. 2011. 『레알청춘』. 삶창.; 안치용. 2011. 『청춘은 연대한다』. 프로네시스. 다큐멘터리로는 여성영상집단 ‘반이다’의 <개청춘>(2009), 석보경, 장경희, 정동욱의 <방, 있어요?>(2009), 최신춘의 <알바당선언>(2008), 김은민의 <내청춘을 돌려다오>(2009), 하셋별의 <나의 길 위에서>(2010), 늘샘의 <노동자의 태양>(2010) 등이 주목할 만하다. 우문기의 <죽구왕>(2013)이나 엄태화의 <잉투기>(2013)는 청년 세대의 잉여 문화에 대한 극영화로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웹툰으로는 주호민의 <무한동력>, 윤태호의 <미생>, 노란구미의 <돈까스 취업>(2008), 광인근의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하일권의 <목욕의 신>, seri의 <고시생툰>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들을 삶을 그리고 있다. 문학장에서는 김애란을 필두로 김사과, 박솔피,

작동하는 기초 코드를 이루고 있다. 생존과 낙오를 가르는 상황이 바로 경쟁이다. 원래 ‘경쟁’은 시장과 스포츠 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용어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로 침투하였고, 그런 영역들에서의 행위준칙을 지도하는 원리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기업을 위시한 여타 사회 조직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인간상으로서 “전사, 리더, 모험가”와 같은 경쟁인(homme compétitif)의 형상이 군림하였고(Ehrenberg, 1991: 13-4), 경쟁의 상상계가 소위 신경제 시스템의 지배적 정신 상태, 사회관계의 양태, 그리고 자기통치의 이상적 원리로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한다(Ehrenberg, 1991: 14-5; 베라르디, 2009: 131-5). 경쟁 프레임이 펼치는 상상계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 관계 형식은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위치들이 서로 퍼포먼스를 통해 각축하는 경연장(競演場)으로 나타난다. 자아는 근본적으로 승부에 임한 존재로 상상되며, 그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방법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하여 살아남는 것, 즉 서바이벌하는 것이다(Kim, 2014: 48). ‘서바이벌’은 이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연명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제로부터 경쟁적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의미론적 전이를 겪는다.

IV. ‘서바이벌’의 의미론

이와 같은 경쟁 패러다임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일상문화의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삶의 원초적 풍경들을 이루게 된다. 가족,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경쟁은 하나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혹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를 깊이 내면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서상철, 2011; 류용재·박진우, 2012: 142). 자기계발 담론, 경영 담론, TV에서 방영되는 각종 리얼리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들의 압도적 인기와 영향력은 이를 방증한다⁴⁾. 웹툰, 드라마, 문학작품 등에서 ‘배틀로얄(battle royale)’로 상징되는 서바이벌 상황과 알레고리 혹은 상징들이 등장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현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구현되어 있는 ‘서바이벌’이라는 핵심 기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의 모자이크로 나타난다.

첫째, 새로운 생존 개념이 지시하는 사태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 또는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새로운 생존의 의미는 재난이나 위기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뜻이 비유적으로 확장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TV를 점령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과거에는 경쟁의 문법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삶의 필드들(예술, 음악, 무용, 요리 등)을 치열한 경연 상황으로 재구성한다. 서바이벌 가이드(서적)의 형식으로 행위를 지도하는 담론들은 조기유학, 자녀양육, 회사생활, 연애생활, 대학생활, 세계여행, 주식투자, 마케팅 등 한국인의 일상적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서바이벌 메타포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바이벌은 이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청년의 존재와 의식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어로 등극한다.

둘째, 생존은 경쟁에서 이겨 경쟁의 외부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황을 한 번 더

박주영, 서유미, 한재호, 김미월 등이 청년 세대의 삶과 가치를 그려내고 있다.

4)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들은 2009년부터 국내 예능 프로그램의 황금시간대를 점령하고 있다. MBC의 <위대한 탄생 1, 2>, <나는 가수다>, <신입사원>, <댄싱 위드 더 스타>, KBS의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도전자>, SBS의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 <기적의 오디션>, <K-Pop Star>, <빅토리> 등이 그것이다. 케이블에서도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 QTV의 <에드워드 권의 YES CHEF 시즌 2>, Mnet의 <슈퍼스타 K3>, tvN의 <부자의 탄생>, Onstyle의 <도전슈퍼모델 Korea 2>, Storyon의 <아트 스타 코리아> 등이 있다(류용재·박진우, 2012: 144).

미래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에게 대학입시나 취직은 그 자체로 완결된 성공이 아니라, 더 높은 경연장으로 나아갈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사실, 노동의 유연화와 삶의 전반적 액화(바우만) 속에서 끝없는 혁신과 자기계발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신시켜야 하는 사회적 압력을 염두에 두고 보면, 생존 개념의 외부는 용이한 상상을 허용하지 않는다(어쩌면 그 유일한 외부는 죽음일지도 모른다). 경쟁의 이 유사 무한성은 생존에의 성공을 일종의 소실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하여 “꼭대기의 딱 한 자리, 그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패자”라는 진단은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세계상의 진실을 적시하고 있다(엄기호, 2010: 46).

셋째, 경쟁 상황에서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모든 잠재적 역량을 가시적 자원(자본)으로 전환하는 자기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는, “개인들 간의 군비경쟁”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스펙 경쟁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최철용, 2011: 39). 생존 여부는 요행이나 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존 추구가 자신의 자아와 맺는 합리적 규율과 통치 가능성에 종속된다. 몇몇 자기계발서는 적절하게도 이런 힘을 ‘생존력(生存力)’이라 명명하고 있다(조용상, 2009; 김광희, 2013). 생존력은 경연에 동원되는 자본이며, 생존력의 확장이라는 최대의 과제는 오직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 생존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그것을 계발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 생존에 적합한 존재로 자신을 변환시키는 일종의 초도덕적 프로그램이다. 그리하여 힘과 도덕의 위계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새로운 생존은 특별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88만원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서바이벌을 향한 노력은 성공이나 치부(致富) 혹은 명성의 획득을 위한 야심찬 시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평범한 안정을 위한 분투”이다(박고형준, 2014: 119). 21세기 한국의 청년 세대들은 “평범함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 이상(以上)을 꿈꾸지 않으며, 안정된 삶을 소망한다(정수남·김정환, 2014). 생존은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야심차게 전진하여 무언가를 의기양양하게 획득하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더 아래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 피로와 체념의 은폐된 감정,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의’ 삶에 대한 소망의 이미지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존의 의미론은 자아 표현과 사회적 적응의 접합,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아가 스스로를 차별화(differentiation)하는 것과 자신을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것의 기묘한 접합으로 구성된다(Cederström, 2011: 39). 가령,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존재 전체를 생존 게임에 헌신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서바이벌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구성하고 연출함으로써 서바이벌 상상계의 휴먼 드라마를 제공하는 장면들 속에서, 생존과 진정성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를 이룬 채 현상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 진정성을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진정성을 위해 생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향해 특수하게 정향된 새로운 유형의 진정성(생존주의적 진정성)이 나타난다.

V. 마음의 분화

생존주의적 행위공간은 복수(複數)의 레짐들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분화를 겪는다. 허시먼을 빌려 말하자면, 생존주의에 대한 충성(loyalty), 항의(voice), 그리고 이탈(exit)의 가능성들이 항존한다(허시먼, 2005). 생존주의에 대한 항의에는, 공적 삶의 가능성에 가치를 부

여하면서 생존주의적 마음의 발로를 비판하는 것이 공존주의와, 생존의 기본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서바이벌에 매몰된 자들과 스스로를 ‘구별짓기’하는 성공한 자들의 향의 유형인 독존주의가 있다. 한편 탈존주의는, 생존주의적 존재양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존재와 실존과 생명의 부정에까지 이르는 태도와 사고로 특징지어진다.

독존주의는 생존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인화된 자율적 삶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독(獨)은 타인들과의 교제나 사교로부터 벗어나려는 초월적 자세를 표상한다.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독립된 삶에 대한 욕망, 강력한 개인주의적 가치 등이 여기에 내포된다. 독존은 생존투쟁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승리했거나 아니면 그런 투쟁으로부터 (아마도 부모의 도움으로) 상대적으로 면제된 자들이 생존 경쟁의 괴로움과 처절함을 회피하여 구성한, 자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사회적인 ‘자유주의적’ 삶의 형식이다. 이는 초식남(草食男), 나홀로족, 니트족, 혹은 싱글족으로 불리는 행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규정한다(우에노 치즈코, 2007). 생존주의의 세계를 초월하여, 생존에 매몰된 청년들을 때로는 조소하며, 때로는 비판하면서, 삶의 미학적 표현과 구성을 통해 그들과 ‘구별짓기’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독존주의이다.

공존주의는 생존주의적 삶의 형식의 시대적 전횡에 문제제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집합적 라이프스타일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공적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태도를 집약한다. 공존주의를 구성하는 주된 장치는 역시 다양한 형식의 운동이다. 시위나 집회, 공연, 학습, 세미나 등의 모임들을 통해서 공존주의자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구체적 실천들이 발생한다. 이들의 중요한 감정적 자원은 분노와 공감이다. 생명평화운동, 대안주거운동, 기본소득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협동조합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존주의를 넘어선 공존을 꿈꾸는 청년들이 존재한다(이윤경·신승철, 2014).

탈존주의는 생존주의로부터의 과격한 이탈의 운동이다. 탈존(脫存)이란, ‘존(存)’의 여러 형식들(사회적, 생물학적, 정치적)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 삶을 끊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비참한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싶지 않은 마음들의 방향성을 표상한다. 생존의 꿈이 거부되었을 때, 공존의 현실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독존의 환상이 환멸로 끝났을 때, 탈존의 참혹한 실재가 나타난다. 탈존의 체험은 이런 비판주의가 개인적 삶의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서 병리증상(자살, 디프레션, 여러 형태의 정신적 장애들, 범죄, 절망)의 형태로 표출될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 탈존주의는 생존주의의 환상적 스크린이 미처 가리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리얼리티에서 자라나는 태도이다.

VI. 주목해야 하는 징후들

21세기 한국 청년세대에 대한 이런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개별, 공동 작업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문화적 특이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 왔다. 그 대표적 흐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미래구성 능력을 꿈-자본(dream-capital) 개념으로 포착하고 이를 탐구하는 것⁵⁾. 둘째, 독특한 청년집단들에 대한 사례연구 (시쓰는 청년들과 힙합 언더그라운드 씬의 래퍼들)⁶⁾. 셋째, 청년의 문화적 표상물들에 대한 연구⁷⁾.

5) 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사회』 24. (김석호 외 공저).

6) 김홍중. 2016. "진정성의 수행과 창조적 자아에의 꿈". 『한국사회학』 50(2); Kim Hong-Jung. 2018. "Rapping the Future, Remaking the Authenticity". (forthcoming, with Sung Yeon-Joo).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21세기 청년세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징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나는 이를 다음의 5가지 명제로 집약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청년은 청춘과 분리되어, 청춘은 부유한 장년/노년에 의해 전유된다. 이 과정은 근대문명의 '청년', '청춘' 개념의 해체를 의미한다. 생물학적 젊음과 활력, 그리고 삶의 향유가능성, 새로움의 창출 가능성을 집약하는 '청춘'은 청년세대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청년=청춘'은 파괴된 도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에 대해 가해지는 훈계, 권고, 조언, 약속은 모두 청년들 자신들에 의해 거부된다. 청년이라는 개념 역시 문명사적 폐기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1세기 한국 청년은 이런 맥락에서 계몽의 대상도, 조롱이나 비판의 대상도,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청년 세대는 지난 10여년간 자신들에게 투하된 사회적 관찰을 소비하면서, 일종의 '재현거부집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386의 남성 지식인들 혹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명명하고 탐구하고 재현할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청년의 진리는 다른 세대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다는 강한 '당사자주의'가 이들에게 존재한다. 이들은 '주체이고자 하는 의지'에 매우 충만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재현하면서, 스스로의 세대성을 자신들의 언어로 구현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그러나 어떤 언어를 이들이 발명해내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셋째, 청년의 내부에 계급/젠더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게 존재한다. 꿈-자본에 대한 탐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상상 속에서 구성하여, 그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심적 동력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존주의 세대는 생존을 위해 부모의 자원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에까지 활용한다. 또한 이 세대의 젠더 차이 역시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특히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 이대시위,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미투운동 등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인권, 젠더, 차별, 폭행 등에 대한 감수성의 차원에서 남성/여성 청년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 남성청년문화의 한 단면은 일간베스트로 대표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낭만적 사랑이나 연애, 혹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친밀성의 영역에서 도리어 '혐오'의 정동을 발산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이는 이들에게 친밀성이 더 이상 문제해결의 장소가 아니라, 리스크이자 새로운 문제발생의 장소라는 의미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리벤지포르노,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별 이후의 폭행). 친밀성의 영역을 점령한 것은 '애인'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무해한 'cute'는 청년들이 소비하는 순수한 사랑의 판타지를 구성한다.

넷째, 한국 청년세대는 이제 더 이상 발전주의적 미래관념, 민주화의 진보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소위 '자기계발의 시대'(서동진)에는 여전히 '노력'을 통해 개인주의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지만, 2010년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투명한 인식을 갖는다. 부르디외가 말하는 '미래 없는 자들(hommes sans futur)'로 변모한 듯이 보인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시대에 '서바이벌'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공무원시험). 그러나, 발전주의나 민주화의 '미래'가 소멸했다고 해서, 이들이 미래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다수의 동시대의 해외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되고, 상상되며, 구축된다. 대표

7) 김홍중. 2016. "청년 여성 프리카리아트의 얼굴 - 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김홍중. 2018. "<버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문학동네> 96.

적인 것이 ‘야망의 소실’이라 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야심’이나 ‘야망’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면서, 평범한 미래의 ‘소확행’을 꿈꾼다. 미래는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허황되지 않은 미시적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다섯째, 자아-주권 개념. 21세기 한국 청년세대에게 ‘주권’은 국가주권이나 국민주권이기 이전에, ‘자아-주권’이다. 래퍼들이나 시인지망생, 혹은 문화적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늘 놀라는 것은, 이들 청년들에게 ‘창조하는 자아’의 중요성,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실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자아는 미학적 대상이며, 윤리적 대상이자,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 자아의 욕망, 진리, 권리, 그리고 주권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도덕이나 이념도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아는 이들 청년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며, 증오하며, 변형을 가하고, 완성시키고, 구성하려는 욕망의 대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사실 19세기 미학주의자들이 꿈꾼 ‘예술작품으로서의 자아’ 개념과 매우 흡사한데, 21세 한국 청년세대는 이를 일상적 삶에서 체화하고, 이를 의식하는 집단으로서의 최초 세대를 이루는 듯이 보인다. 더 나아가 거대담론과 이데올로기의 해체과정 속에서 이들 청년 세대는 ‘자아-주권’이라 불릴 수 있는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상사태의 결정권을 권최중심급을 자아로 이전하는 과격한 개인주의의 형태이다. 한국적 메리트크라시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맹렬한 요구는 여기에 뿌리는 둔다. 자아-주권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의 이중 간섭 속에서 형성된, 매우 독특한 형태의 자아 문화라고 파악된다. 자아-주권의 문화는 현재의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아를 ‘인정’, ‘존중’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거부로 나타나게 한다. 또한 주권자-자아들은 쉽게 연합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파편화되어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 연결되는 느슨한 네트워크 유형의 교체를 선호하게 된다. 자아가 주권자일 때, 자아와 자아 사이에는 거대한 거리가 필요한데 실제의 삶에서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청년들은 삶을 이탈한다. 이에 대한 차후의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 앞서 차별적으로 언급한 생존, 독존, 탈존, 공존은 순수한 하나의 이념형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현재 청년 세대들이 상황에 맞추어 구사하는 일종의 “행동방식의 도구함(toolkit)”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어느 누구도 순수한 공존주의자나 독존주의자가 아니다. 반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위의 네 가지 삶의 형식은 상황논리에 맞추어 행동강령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대응양식으로 기능하는 듯이 보인다. 가령, 생존주의적 통치성에 의해 오랫동안 교육받아 고도의 경쟁적 하비투스과 태도를 갖고 있다 해도, 그 청년은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독자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독존주의자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나 공적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비판주의에 빠진 탈존주의자일 수도 있다. 네 가지 삶의 양식은 서로를 배척한다기보다는 서로를 기능적으로 보완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생존주의로 보인다.

청년세대는 모순적 욕망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주의와 공존주의를 결합시켜 나가며, 안전과 자유를 결합시키고, 물질주의와 자기표현을 결합시킨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을 흡수한 동시에 민주적 가치에도 민감하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둡지만, 그렇다고 각자 개인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꿈을 축소하여, 작지만 실행 가능한 꿈을 꾸다. 이들이 만들어갈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들에게 물어 배워야 한다.

총평

이준구(경제학부 명예교수)

오늘 논문을 발표하신 세 분의 선생님들과 토론을 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서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에 대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런 토론의 장이 더욱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표하신 조영태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경험하게 될 문제의 심도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진짜가 다가온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 말의 진실성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금부터 진지한 대비를 해나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약간은 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저하와 노령화가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 개인과 기업이 이에 대한 적절한 적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상황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적응해야만 계속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역시 바뀌어진 환경에 적절히 적응해야만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여건에 적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은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데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자세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해 적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개인과 기업에 있고, 또한 그들이 합리적이려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조심스런 예측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신 최혜지 교수는 우리 사회 노년층의 삶과 노동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속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연령별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위 “U-벤드”(U-bend)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행복감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가 서서히 내려가 50대 초반에 최저점에 이르고 그 후로는 다시 높은 수준으로 반전되는 패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일관되게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기로 가면서 행복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최 교수가 지적한 높은 노인 빈곤률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미미한 관계로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인문제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다룬 세 번째 발표자 김홍중 교수는 우리 사회의 유달리 낮은 출산률의 근본적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구성되는 친밀성 영역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영역(리스크)으로 전환되어, 결혼과 출산이 삶의 필수적 과정으로부터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이 아닌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연히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 셈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이 낳으라고 보조금 얼마간을 지급한다 해서 당장 출산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오히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부모는 과거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물질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수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가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하루아침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이 뜻밖에도 평온한 것이 될 가능성도 큼니다.